

#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수준, 직업능력 및 취업욕구관련 분석

## Employment Need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 Centering on Economic Status and Occupational Ability Variables

이현경\*, 박효은\*\*, 최만규\*\*\*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보건행정학전공\*\*, 고려대학교 보건행정학과\*\*\*

Hyun-Kyung Lee(lhk9127@korea.kr)\*, Hyo-Eun Park(lisa84@korea.ac.kr)\*\*,  
Mankyu Choi(mkchoi@korea.ac.kr)\*\*\*

### 요약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수준과 직업능력에 따른 취업욕구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장애인 고용패널조사에 3년간 참여한 정신적 장애인 298명(가중빈도적용:154,3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직업교육 참여희망은 남성일 때, 중졸 이상일 때, 자격증을 보유했을 때, 그리고 장애유형중 지적장애일 때 직업교육 참여희망이 높았다. 한편, 취업의사 관련요인은 남성일 때, 가구주일 때, 중등교육 이상 이수하였을 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육체활동 능력이 높아질 때, 그리고 장애유형 중 자폐장애일 때 취업의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한 직업재활 서비스제공 및 사업주 주도적 직업활동 등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정신적 장애인 | 경제수준 | 직업능력 | 취업욕구 | 정신재활 |

### Abstract

The study aimed to figure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need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s the employment needs may differ according to income and occupational ability amo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who are classified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Study subjects included 298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s among registered people with mental disability. And the data from 2008-2010 Panel Data of Employment of Person with Disability were analyzed wit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It has been found that interested in vocational education of mentally disabled when the graduated from junior high school, the types of intellectual disability, hope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was high. And then, Mental disabilities with employment needs, male, head of household, when the graduated from junior high school, when ability to increase physical activity and mental disabilities type of autism spectrum disorder when employment desires were. Based on these results, to increase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provid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that reflect the need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employer-driven professional activity is proposed.

■ keyword : | Mental Disabilities | Economic Status|Occupational Ability|Employment Need | Mental Rehabilitation |

\* 이 연구는 2012년도 국립서울병원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3년 04월 16일

수정일자 : 2013년 06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6월 17일

교신저자 : 최만규, e-mail : mkchoi@korea.ac.kr

## 1. 서론

장애인의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한 여러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개선하여 독립적으로 경제력을 갖는 생산적 인간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궁극적 목표는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찾아서 취업하고 그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적응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9].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단순히 빈곤에 대한 해결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에게 취업은 생존권과 노동권의 보장과 함께 장애인의 자아를 실현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8]. 장애인이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 그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 회복과 장애인의 신분보장을 위한 취업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취업은 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가족구성원의 생활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25].

사회복귀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직업 문제가 제일 중요하며, 많은 정신적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직업재활서비스는 일상활동,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 등을 제고하며 실제 재활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17][20].

특히, 회복의 정도를 결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직업재활은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재활의 뜻이라 할 만큼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직업이 있는 경우에 사회통합 정도가 높다[23]는 것은 취업이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통합에 의미 있는 노력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보고된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현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정신적 장애인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고용형태, 직종, 임금 등 고용성과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열위에 있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8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지적

장애 22.5%, 자폐성장애 8.8%, 정신장애 9.9%로 장애인 전체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37.7% 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더구나 취업자로 분류된 자폐성장애나 정신장애자들 중 약 60%는 보호고용 형태이다. 이는 정신적 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일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보호적 환경에서 저임금 비숙련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실태 등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직종은 80.0%가 단순노무 종사자였고, 직내내 지위는 일용 근로자가 47.2%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49].

그들이 고용된 직무환경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종 중 세차를 포함한 청소업체에 다수 고용되며, 외식업체에 종사하는 경우 대인접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주방보조가 대부분이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가공업체의 단순공정, 업무 보조 등이 주 업무이다. 더욱이 지금의 장애인 고용은 선 배치, 후 지도의 보호고용 형태가 효과적이라는 이유와 정신적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스스로 취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지원고용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에 실패하게 된 경우 장애인과 그 가족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재취업으로의 전환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24].

이러한 정책과 제도적 한계 이외에도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인의 소득[2][5][12-15][38], 건강상태[14][15][22][24][45], 직업능력 및 경력개발 요인[16][22][36][44]등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은 경제활동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며, 지적장애인의 경우 수입이 높을수록 심리적인 측면에서 일반인들보다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5], 직업의 유지기간에도 심리적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하였다[20]. 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며[14] 수급권자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 소득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직업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였다[13]. 건강상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

며, 본인이 자각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활동 상황에 유리하다고 하였고[15], 일상생활 수행능력 역시 취업상태의 정신적 장애인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높고, 일상생활 의존도가 높은 사람은 취업욕구가 낮다고 하였다[14][24].

직업능력 및 개발요인은 선행연구에서 교육수준과 직업훈련 여부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22]고 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5][16]. 이런 선행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지속적인 직무지도가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유지에 중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배경 및 필요성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소득, 건강상태, 직업능력 및 직업경력개발 등에 따라 취업욕구가 달라질 수 있다[14].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본인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은 물론 직업재활 및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관리방안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자폐장애, 정신장애를 나누어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을 총칭하는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전의 연구에서는 미비하게 이루어져 왔었던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능력, 경제수준에 따른 취업욕구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을 제안하려고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본 연구 자료는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장애인 고용패널조사에 3년간 참여한 비경제활동 정신적 장애인 298명(가중빈도적용:154,3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신적 장애인이란 지적장애, 자폐장애, 정신장애 등 3개 장애를 모두 더한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주 수입이 되는 일이나 18시간 이상 무급 가족종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는 사람, 혹은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은 하였으나 일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 또는 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 중 하나의 분류에 속한 사람을 의미한다[22]. 자료는 모집단의 실제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가중빈도를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정신적 장애인 중 비 경제활동인구	실제빈도	가중빈도
지적장애	159	83,174
자폐성장애	22	3,354
정신장애	117	67,820
계	298	154,348

가중치 계산은 표본추출률과 응답률을 고려하여 사후 층화하였고 설계 가중치와 벤치마킹 보정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우선 2010년 3월 31일 기준 등록장애인을 모집단으로 사용하여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에 대하여 표본 추출률의 역수와 응답률의 역수를 곱하여 설계가중치를 계산하였다. 그 후 장애유형과 경제활동 상태별로 행정보조 정보를 이용하여 모수편향을 줄이기 위해 벤치마킹 보정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가중치 산출 및 모수추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W_{jksst} = W_{2jksst} \times ADF_{2j} = W_{1jks} \times ADF_{1g} \times ADF_{2j} = W_{1jks} \times \frac{T_g}{S_g} \times \frac{T_j}{S_j}$$

(j는 지역, k는 연령, s는 성별, g는 장애유형, l은 경제활동 상태)

\* 모집단 및 표본분포 가중치

$$W_{jks} = \frac{N_{jks}}{n_{jks}} \quad j=1, \dots, 15, k=1, 2, 3, 4, s=1, 2$$

$N_{jks}$  : j지역 k연령대 s성별의 모집단 수

$n_{jks}$  : j지역 k연령대 s성별의 유효표본수

\* 장애유형 가중치 보정인자  
(ADF1: Adjustment Factor)

$$ADF_{1,g} = \frac{T_g}{S_g}$$

T<sub>g</sub> : 장애유형별 모집단 합계 (2010년 기준 등록장애인 현황)

S<sub>g</sub> : 장애유형별 가중치 합계 =  $\sum_{j=1}^{15} \sum_{k=1}^4 \sum_{s=1}^2 W_{j,ks}$   
(g=1, ..., 15 = 15개 법정장애유형)

\* 경제활동 가중치 보정인자  
(ADF2: Adjustment Factor)

$$ADF_{2,l} = \frac{T_l}{S_l}$$

T<sub>l</sub> : 경제활동별 모집단 합계 (2010년 기준 등록장애인 현황)

S<sub>l</sub> : 경제활동별 가중치 합계 =  $\sum_{j=1}^{15} \sum_{k=1}^4 \sum_{s=1}^2 \sum_{l=1}^{15} W_{j,ksl}$   
(l=1,2,3=3가지 경제활동상태(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이와 함께 비경제활동 인구의 교육/훈련 경험 기간을 산정하고, 3차 조사에서 조사가 되지 않은 운반능력, 육체활동능력 산정을 위해 1차 및 2차 조사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 2. 연구방법

### 1) 변수의 구성

#### (1) 종속변수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분석하기 위해 직업교육/직업훈련 참여희망여부, 취업의사여부(기간 상관없음)를 각각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직업교육/직업훈련 참여는 희망유무로 구성하였으며, 취업욕구는 1년 이내 취업욕구와 향후 취업욕구를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 (2) 독립변수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경제수준을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직업적 능력은 자격증 유무, 운반능력, 육체활동능력,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으로 구분하였고, 경제수준은 공적

소득보장제도 수급 유무로 하였다.

#### (3) 통제변수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부, 가구주유무, 최종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신적 장애인 구분, 일상생활도움 필요여부,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변수 정의

종속 변수	취업욕구	직업교육/직업훈련 참여 희망여부	1=교육/훈련참여 희망함 0=교육/훈련참여 희망하지 않음
		취업의사(기간 상관 없음)	1=취업의사 있음 0=취업의사 없음
독립 변수	자격증		1=있음 0=없음
		운반능력	1=전혀 할 수 없음 2=4kg운반 3=8kg운반 4=20kg운반 5=40kg운반 6=40kg이상 운반
	직업능력	육체활동능력	1=응답범주 중 1개 선택 2=응답범주 중 2개 선택 3=응답범주 중 3개 선택 4=응답범주 중 4개 선택 5=응답범주 중 5개 선택 6=응답범주 6개 모두선택
		대인관계/조직적응 능력	1=못하는 편임 2=보통 3=잘하는 편임
	경제수준	공적소득보장 제도 수급여부	1=수급자 0=비수급자
통제 변수	인구 사회학적 변수	성별	1=남자 0=여자
		연령	2010년 4월30일 실제 기준 연령
		가구주여부	1=장애인 본인이 가구주 0=장애인 본인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유무	1=유배우자 0=무배우자(이혼, 사별 포함)
		정신적 장애인 구분	1=지적장애 2=자폐장애 3=정신장애
		최종학력	1=무학 및 초졸 2=중졸 3=고졸 4=대졸이상
		일상생활도움 필요여부	1=필요하다 0=필요없다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	1=좋은편이다. 0=좋은편이아니다.

2) 분석 방법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신적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능력, 경력개발, 경제수준에 따른 취업욕구는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욕구 관련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인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응답자 298명의 가중빈도를 적용한 정신적 장애인 154,348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많았고, 배우자는 조사대상 전원이 없었다. 그리고 약 35%가 가구주였는데 이는 혼자 거주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명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84,089	54.5
	여	70,259	45.5
가구주 여부	가구주	53,076	35.2
	가구주 아님	97,850	64.8
배우자 유무	유	0	0
	무	154,348	100
정신적 장애인 구분	지적장애	83,174	53.9
	자폐성장애	3,354	2.1
	정신장애	67,820	44.0
최종학력	무학 및 초졸	65,085	42.1
	중졸	24,116	15.6
	고졸	55,184	35.8
	대졸이상	9,963	6.5
일상생활 도움필요 여부	필요없다	34,430	22.3
	필요하다	119,918	77.7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않다	88,998	57.7
	좋다	65,350	42.3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분류해 본 결과, 지적장애 53.8%, 정신장애 43.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자폐장애는 2.1%였다.

교육특성은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42.1%로 거의 절반 수준이었고 중졸 15.6%, 고졸 35.8%로 정신적 장애인

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7.7%로 정신적 장애인 대부분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또한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해서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욕구

조사대상 정신적 장애인 154,348명중 직업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9,890명으로 6.4%에 불과했다. 직업교육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9,890명 중에서 남성이 7,072명(71.5%)으로 여성 2,818(28.5%)보다 높았고, 나이의 경우 20~29세 범주가 4,715명(47.7%)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가구주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아닌 경우(8,879명, 89.8%), 장애유형 별로는 지적장애인(8,071명, 81.6%)인 경우가 높은 직업교육 참여의사를 보였다. 학력에서는 고졸(5,440명 55.0%)이 참여의사가 제일 높았고, 초졸 및 무학의 경우(748명, 7.6%)는 참여의사가 낮았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6,467명, 65.4%)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3,423명, 34.6%) 보다 높은 교육 참여 희망률 보였으며, 주관적인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7,499명, 75.8%)의 교육참여 희망률이 높았다.

정신적 장애인 전체 154,348명 중 취업의사가 있는 정신적장애인은 20,508명(13.3%)이었고,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는 133,840명(86.7%)이었다.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성별에서 남성(14,759명, 72.0%)이 높았고, 나이에서도 20~29세 구간에서 높은 취업의사를 보였다. 장애유형을 나누어 본 결과에서도 지적장애인인 경우 비교적 높은 취업의사를 보였으며,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및 무학인 경우가 46.6%로 높은 취업의사를 보여 학력의 제한으로 취직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초졸 및 무학자가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일상생활 도움필요 여부와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도 위의 직업교육 참여희망 여부와 같이 일상생활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취업의사가 높았다[표 4].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욕구

	직업교육		취업의사	
	참여 희망	여부	(기간 상관없음)	
	Y	N	Y	N
성별*				
남	7,072 (71.5)	77,016 (53.3)	14,759 (72.0)	69,330 (51.8)
여	2,818 (28.5)	67,441 (46.7)	5,749 (28.0)	64,509 (48.2)
나이*				
10~19세	2,285 (23.1)	4,804 (3.3)	2,073 (10.1)	5,015 (3.8)
20~29세	4,715 (47.7)	21,224 (14.7)	6,808 (33.2)	19,131 (14.3)
30~39세	2,091 (21.1)	24,012 (16.6)	4,055 (19.8)	22,048 (16.5)
40~49세	460 (4.7)	39,930 (27.6)	5,251 (25.6)	35,139 (26.3)
50~59세	340 (3.4)	30,479 (21.1)	2,321 (11.3)	28,497 (21.3)
60~69세	.	24,009 (16.6)	.	24,009 (17.9)
가구주 여부*				
본인이 가구주	1,011 (10.2)	52,065 (36.9)	3,804 (18.6)	49,272 (37.8)
본인이 가구주 아님	8,879 (89.8)	88,970 (63.1)	16,703 (81.4)	81,146 (62.2)
장애유형*				
지적장애	8,071 (81.6)	75,102 (52.0)	13,431 (65.5)	69,742 (52.1)
자폐성장애	687 (7.0)	2,667 (1.9)	805 (3.9)	2,549 (1.9)
정신장애	1,132 (11.4)	66,688 (46.2)	6,272 (30.6)	61,548 (46.0)
교육수준*				
초졸 및 무학	748 (7.6)	64,370 (44.5)	62,330 (46.6)	2,756 (13.4)
중졸	1,011 (10.2)	23,105 (16.0)	21,519 (16.1)	2,597 (12.7)
고졸	5,440 (55.0)	9,744 (34.4)	43,951 (32.8)	11,233 (54.8)
대졸	2,691 (27.2)	7,272 (5.0)	6,039 (4.5)	3,923 (19.1)
일상생활도움필요여부*				
필요하다	6,467 (65.4)	113,451 (78.5)	13,877 (67.7)	106,041 (79.2)
필요없다	3,423 (34.6)	31,006 (21.5)	6,631 (32.3)	27,798 (20.8)
주관적 건강상태*				
좋다	7,499 (75.8)	57,851 (40.1)	13,921 (67.9)	51,429 (38.4)
나쁘다	2,391 (24.2)	86,606 (59.9)	6,587 (32.1)	82,410 (61.6)

\* p<.0001

3)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경제수준에 따른 취업 욕구

정신적 장애인들 중 직업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들은 자격증소지자가 약 20.1%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직업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았다. 물체운반능력에서는 8kg~20kg를 운반(6,690명, 67.6%)할 수 있다는 정신적 장애인이 직업교육 참여희망이 제일 높았으며, 육체활동 능력도 6개의 응답문항 중 3~4개를 택한 장애인(4,557명, 46.1%)이 제일 높은 직업교육 참여희망률을 보였다. 하지만 직업교육을 원하지 않는 정신적 장애인들에서 물체운반능력과 육체활동능력이 제일 낮은 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신체적 직업능력이 떨어지면 직업교육 참여희망도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부분에서는 직업교육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을 못하는 경우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보통, 잘하는 편 순이었다.

경력개발 부분에서는 직업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전에 현장실습/인턴쉽 경험이 없는 경우가 93.1%(9,205명)이었고, 공공/민간 훈련/경험이 없는 경우가 86.9%(8,598명)인 것으로 보아 이전 경력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던 정신적 장애인이 직업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의욕이 높았다. 경제수준에서는 교육참여 희망자의 공적소득보장수급여부에서는 비수급자인 6,689명(67.6%)이 직업교육참여를 희망해 수급자인 경우(3,201명, 32.4%)보다 두배 정도 많은 참여희망률을 보였다[표 5].

정신적 장애인 154,348명 중에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20,508명의 결과를 보면 위의 직업교육 참여희망 여부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직업능력을 보면 취업의사가 있는 정신적 장애인 중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은 19.5%(3,992명)였고, 물체운반능력은 8kg~20kg 운반능력이 있는 사람에서 가장 높았다(58.1%).

육체활동능력에서는 취업의사가 있는 정신적 장애인들 중 6개의 응답문항 중 3~4개를 택한 장애인(8,619명, 42.0%)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육체활동 능력이 제일 낮은 군이 대다수를 77.7%(103,921명)차지 하고 있어 위의 직업교육 참여희망 여부와 비슷하게 육체활동능력이 저하될 시 취업의사도 같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대인관계와 조직적응 능력에선 취업의사자 중 대인관계와 조직 적응을 원활하게 못하는 경우(14,060명, 68.6%)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경제수준별로는 비수급자(11,457명, 55.9%)와 수급자(9,051명, 44.1%)의 취업의사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표 5. 직업능력, 경제수준에 따른 취업요구

	직업교육 참여희망 여부		취업의사 (기간 상관없음)		
	Y	N	Y	N	
직업능력	자격증 소지여부*				
	유	1,991 (20.1)	11,846 (8.2)	3,992 (19.5)	9,844 (7.4)
	무	7,899 (79.9)	132,611 (91.8)	16,516 (80.5)	123,995 (92.6)
	물체운반 능력*				
	할수없음 ~ 4kg가능	1,013 (10.2)	54,107 (37.5)	2,650 (12.9)	52,470 (39.2)
	~ 20kg 가능	6,690 (67.6)	65,339 (45.2)	11,924 (58.1)	60,105 (44.9)
	40kg이상 가능	2,188 (22.1)	25,011 (17.3)	5,935 (28.9)	21,264 (15.9)
	육체활동 능력* §				
	응답범주 중 1~2개 선택	3,449 (34.9)	108,135 (74.9)	7,663 (37.4)	103,921 (77.7)
	응답범주 중 3~4개 선택	4,557 (46.1)	27,480 (19.0)	8,619 (42.0)	23,417 (17.5)
	응답범주 중 5~6개 선택	1,884 (19.1)	8,843 (6.1)	4,226 (20.6)	6,501 (4.9)
	대인관계/조직적응 능력*				
	못하는편임	7,946 (80.3)	122,708 (85.0)	14,060 (68.6)	116,594 (87.1)
	보통	1,420 (14.4)	18,816 (13.0)	4,340 (21.2)	15,895 (11.9)
	잘하는편임	525 (5.3)	2,934 (2.0)	2,108 (10.3)	1,350.5 (1.0)
경제수준	공적 소득보장 수급여부*				
	수급자	3,201 (32.4)	95,798 (66.3)	9,051 (44.1)	89,948 (67.2)
	비수급자	6,689 (67.6)	48,660 (33.7)	11,457 (55.9)	43,891 (32.8)

\* p<.0001

§ 육체활동능력 응답범주(중복응답가능) : ① 손, 발, 다리 등을 사용하여 계단, 사다리, 경사로 등을 올라가거나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② 허리를 굽히거나 몸을 앞으로 굽히고 뒤로 찌르는 동작과 같은 웅크려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③ 직무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지속적으로 손을 사용하여 정밀하고 숙련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④ 말로 생각이나 의사를 교환하거나 표현할 수 있어 개인 및 다수에게 정보 및 오락제공을 목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 ⑤ 청력을 활용해 소리를 듣고 기계의 이상유무를 판단하거나 타인의 논리적인 말을 듣는 청취활동을 할 수 있다. ⑥ 시력을 활용해 물체의 길이, 넓이, 색의 차이 등을 파악하는 일을 할 수 있다.

2.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요구 관련요인 분석

1) 직업교육 참여희망

정신적 장애인 중 직업교육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직업교육 참여희망 관련요인

구분	B	S.E.	p	OR(95%CI)	
성별	0.4556	0.0311	<.0001	1.577 (1.484,1.676)	
				0.868 (0.864,0.872)	
				0.562 (0.51,0.619)	
나이	-0.1415	0.0023	<.0001		
				3.558 (3.11,4.071)	
가구주 여부	-0.5767	0.0495	<.0001		
				9.7 (8.89,10.584)	
장애유형	지적	1.2692	0.0687	<.0001	
	자폐성	2.2721	0.0445	<.0001	
인구 사회학적 요인	교육수준	1.0067	0.0678	<.0001	2.736 (2.396,3.126)
	대졸				0.923 (0.833,1.023)
고졸				6.689 (6.013,7.442)	
	중졸	1.9005	0.0544	<.0001	
일상생활 도움필요 여부				0.202 (0.189,0.216)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	-0.1175	0.033	0.0004	0.889 (0.834,0.948)
자격증 여부				2.448 (2.232,2.686)	
	물체운반 능력	0.6434	0.0107	<.0001	0.526 (0.515,0.537)
직업능력	육체활동 능력	0.2808	0.0175	<.0001	0.755 (0.73,0.781)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0.484 (0.438,0.535)
보통				1.644 (1.536,1.76)	
	잘함	0.4972	0.0348	<.0001	
경제수준	공적 소득 보장 수급	-0.6984	0.0357	<.0001	0.497 (0.464,0.533)

Model Chi-Square 37044.593  
-2 Log likelihood 119962.59

\* 기준변수 : 성별(남성=1, 여성=0), 가구주(가구주임=1, 비가구주=0), 지적장애(지적장애=1, 정신장애=0), 자폐장애(자폐장애=1, 정신장애=0), 중졸(중졸=1, 초등 및 무학=0), 고졸(고졸=1, 초등 및 무학=0), 대졸(대졸=1, 초등 및 무학=0), 일상생활도움필요여부(필요하다=1, 필요없다=0), 현재건강상태(좋은=1, 나쁨=0), 자격증(있음=1, 없음=0),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보통(보통=1, 못함=0),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잘함(잘함=1, 못함=0), 공적소득보장수급(수급자=1, 비수급자=0)

분석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1.6배 높았고, 나이는 5살 많아질수록 0.9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역시 가구 일 경우 0.6배 영향을 주어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보다 지적장애가 3.6배 높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및 무학을 기준으로 중졸은 6.8배, 대졸은 2.7배 높은 값을 보여 교육수준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희망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이 교육참여 희망률을 높이려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상생활 도움필요 여부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0.2배 영향을 주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직업교육훈련 참여의사가 감소하였다. 주관적인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을 경우에 0.9배 영향을 주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 선행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자격증 소유 여부에서는 자격증을 소유한 정신적 장애인인 2.4배 높은 교육 참여 희망률을 보였다. 또한 물체운반능력(0.5배)과 육체활동능력(0.8배)은 한 단계 상승할 때마다 훈련 참여 의사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신체적 직업능력이 좋을수록 직업교육 참여의사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기대되지 않는 결과이다. 대인관계와 조직적응 능력에서는 못함 보다 보통인 경우에서 1.6배 높은 교육 참여 희망률을 보였다. 경제수준에서는 비수급자 대비 수급자일 때 직업교육 참여의사가 0.5배 영향을 주어 참여의사가 감소하였다.

2) 취업의사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8배 높은 취업의사를 보였고, 나이는 5살 많아질수록 0.9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교육 훈련 참여의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가구주 여부에서는 가구주가 2.1배 높은 취업의사를 보였다. 장애유형에서는 정신장애보다 지적장애가 1.6배, 자폐장애가 4.5배 높은 취업의사를 보였다. 또한 교육수준도 위의 교육 참여 희망률과 같이 초등 및 무학인 경우보다 대졸, 고졸, 중졸 인 경우 각각 7.8배, 2.7배, 3.8배 높은 취업의사를 보여서 정규교육과정의 중요성

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취업의사 관련요인

구분	B	S.E.	p	OR(95%CI)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1.0599	0.0214	<.0001	2.886 (2.768,3.01)	
	나이	-0.0122	0.00106	<.0001	0.988 (0.986,0.99)	
	가구주 여부	0.7618	0.0269	<.0001	2.142 (2.032,2.258)	
	장애유형	지적	0.4844	0.0541	<.0001	1.623 (1.46,1.805)
		자폐성	1.5256	0.0245	<.0001	4.598 (4.383,4.824)
	교육수준	대졸	2.058	0.0402	<.0001	7.831 (7.237,8.473)
		고졸	1.0272	0.03	<.0001	2.793 (2.634,2.963)
		중졸	1.344	0.0324	<.0001	3.834 (3.598,4.086)
		일상생활도 움필요여부	-0.4952	0.0225	<.0001	0.609 (0.583,0.637)
	직업 능력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	-0.1179	0.0209	<.0001	0.889 (0.853,0.926)
자격증 여부		0.2631	0.0284	<.0001	1.301 (1.23,1.375)	
물체운반 능력		-0.5162	0.0064	<.0001	0.597 (0.589,0.604)	
육체활동 능력		0.5741	0.0123	<.0001	1.776 (1.733,1.819)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보통	-0.5639	0.0309	<.0001	0.569 (0.536,0.604)
		잘함	-0.3225	0.0229	<.0001	0.724 (0.693,0.758)
경제 수준	공적 소득 보장 수급	-0.1001	0.0215	<.0001	0.905 (0.868,0.944)	
Model Chi-Square			33973.1356			
-2 Log likelihood			73025.509			

\* 기준변수 : 성별(남성=1, 여성=0), 가구주(가구주임=1, 비가구주=0), 지적장애(지적장애=1, 정신장애=0), 자폐장애(자폐장애=1, 정신장애=0), 중졸(중졸=1, 초등 및 무학=0), 고졸(고졸=1, 초등 및 무학=0), 대졸(대졸=1, 초등 및 무학=0), 일상생활도움필요여부(필요하다=1, 필요없다=0), 현재건강상태(좋은=1, 나쁨=0), 자격증(있음=1, 없음=0),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보통(보통=1, 못함=0),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잘함(잘함=1, 못함=0), 공적소득보장수급(수급자=1, 비수급자=0)

일상생활 도움필요 여부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0.6배 영향을 주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취업의사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고, 주관적인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취업의사에 0.9배 영향을



주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 직업교육 훈련 참여의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물체운반능력도 직업교육 훈련 참여의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고(0.6배), 육체활동능력은 한 단계 상승 할 때마다 1.7배 높아지는 상황으로 육체활동 능력이 취업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수준에서는 비수급자 대비 수급자일 때 취업의사가 0.9배 영향을 주어 취업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고찰

정신적 장애인의 근로특성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낮은 취업률과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개발 및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정신적, 경제적 안녕 및 삶의 질이 증진되도록 해야 할 것 이다[4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장애인 중 비경제활동 인구의 소득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능력 및 직업경력개발 요인에 따라 취업 욕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정신적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욕구 여부에서 가장 큰 설명력을 주는 요인은 성별이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욕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취업욕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고 한 선행연구[3][15]와 일치하며 정신적 장애인에게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가구주인 경우 취업의사가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 역할과 결혼 후 가족부양의무에서 남성의 역할이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인 정신적 장애인들은 배우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특히 배우자 부양 의무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다음으로 학력의 영향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욕구가 높았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도 중졸, 고졸, 대졸로 학력이 올라갈수록 취업욕구도 높았다. 그러나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취업욕구가 올라가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취업욕구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경제활동 장애인의 건강증진이 장애인 취업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손광훈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4].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능력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운반능력 및 육체활동 능력이 높을수록 취업욕구가 높았다. 2010 장애인 고용패널조사를 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정신적 장애인의 70% 이상이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반능력 및 육체활동능력이 높을수록 취업의사도 높고 취업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육체노동이 필요한 곳이라는 한계점을 보여준다. 또한 대인관계/조직적응 능력이 낮은 경우 취업욕구가 높았다. 이는 장애인의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경우 취업률이 올라가는 이전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의 경우 대리응답 비율이 높아 대리응답자의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보통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대인관계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구성원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선 대리인의 보조가 필수적이며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 훈련 시 집중적인 대인관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취업욕구가 있는 정신적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현장실습/인턴쉽 경험이 없는 상태였으며, 공공/민간 교육훈련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의 대부분이 취업욕구가 있었다. 이는 취업욕구가 있는 비 경제활동 정신적 장애인들이 경력개발 및 취업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취업욕구가 없는 비 경제활동 정신적장애인들은 거의 모두 경력개발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원하는 경력개발에 관한 욕구를 파악 후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수준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정신적 장애인은 공적소득보장을 받는 것으로 보고 공적소득보장의 수급여부가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수급권자인 경우 직업교육 참여희망 여부가 낮게 나타났으며 취업의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교육참여를 하게 되면 유급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정소득이 생기면 수급권이 정지 될 것을 염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장애인들의 취업욕구가 떨어진다고 한 선행연구[13][15][19]와도 일치한다. 취업을 원하는 비율이 높지만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희망하지는 않는 비율이 높아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도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취업을 원하지만 직업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비 명목으로 적은수입이 생기거나 교육생으로 취직 후 소득이 수급권자의 자격일 때 보다 충분치 않음으로 이런 상황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공공부조 내 급여체계가 근로연계성(소득공제를 등 포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취업가구에서 공적소득보장의 정책효과가 불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수준과 직업능력에 따른 취업욕구에 대해 분석하고,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정신적 장애인이 남성일 때, 중졸 이상일 때, 자격증을 보유하였을 때,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 유형 중 지적장애 일 때 직업교육 참여의사가 높았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주일 경우,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공적소득보장 수급자일 때는 직업교육 참여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의사를 가진 정신적 장애인은 남성일 때, 가구주 일 때, 중등교육 이상 이수하였을 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육체활동 능력이 높아질 때,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 유형 중 자폐장애일 때 취업의사가 높았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

한 경우와 공적 소득보장 수급자인 경우는 취업의사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각 장애에 따른 취업욕구가 상이하므로 정신적 장애인의 각 장애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소득보장 수급자일 경우 취업욕구가 낮아지므로 공적 소득보장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격증 또한 비경제활동 정신적 장애인에게는 취업욕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므로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한 직업재활서비스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보다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적장애인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통합된 개념이나, 이들에게 동일한 정책을 제공하기에는 세 장애의 특징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각 장애별 차별화된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발병시점이 만 5세 이전인 경우가 많아 이들은 공교육부터 특수학교를 다니며 사회에 나갈 기술을 미리 습득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신장애의 경우 발병시점이 20대 전후로 공교육에서는 장애인으로서 사회에 나갈 준비는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과 일자리는 이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취업의욕을 불러일으키기가 부족하다. 특히 정신장애보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가 매우 높은 취업욕구를 가지고 있어 이들의 높은 취업욕구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및 일자리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정신적장애인의 취업의지 향상을 위해 공적소득보장프로그램의 개편 및 정신적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공적소득보장문제는 정신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적 장애를 가진 가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우선 장애인가구의 취업욕구와 적합성을 높이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며, 소득공제율의 확대와 수급여부와의 조정을 통해 이러한 적합성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정책수단 마련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영국 장애인 뉴딜프로그램 중 Approved work는 피용자와 고용주간 적합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근로소득이 발생하여도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수급권을 정지하지 않는 제도를 설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소득공제율을 장애인취업자의 경우 일반적 수준보다 상향 설정하여 근로유인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 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한 기능상의 결함이 심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특수장애인법(LSS)이 있다. 여기는 정신장애, 자폐장애, 뇌손상으로 영구적인 지적 기능 결함을 가진 사람, 정신적 기능 결함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며 이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정신적 장애인에게 이런 제도 도입을 통하여 정신적장애인들의 취업을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적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한 직업재활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직업훈련이 시급하다. 정신적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각 센터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한정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고, 취업도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상 그들의 욕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신 장애인들의 개개인의 욕구를 사회복지사와 보건행정전문가가 협동하여 파악한 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 경제활동의 정신적장애인의 경우 고졸 미만이 60%정도를 차지해 공교육에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경우가 많다[3]. 따라서 이들에게는 학력과 상관없이 취직이 가능한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훈련 직종 다양화와 사업주와 함께 취업연계 맞춤형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정신적 장애인의 편견이 아직 사회에 높은 진입장벽으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먼저 이들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취업연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면 높은 취업률과 고용의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 장애인의 근로특성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낮은 취업률과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개발 및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정신적, 경제적 안녕 및 삶의 질이 증진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필수,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0권, 제1호, pp.179-206, 2010.
- [2] 강동욱, *장애인고용과 사회복지*, 한국학술정보, 2005.
- [3] 광지영, “장애여성의 노동시장진입 및 유지요인에 관한연구”, 장애와 고용, 제20권, 제1호, pp.79-104, 2010.
- [4] 권유경, *한국장애인의 피고용여부와 월 임금수준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 [5] 김기원, “장애인근로자 장기근속요인에 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26권, pp.9-50, 1995.
- [6] 김성희, 윤상용, 김대철, 서동명, 박수지, 이현민,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보고서, 제30권, 2011.
- [7] 민천식, “Educating Exceptional Children (10th ed.)”, KIrK, Gallagher&Anastasiow(2003). 『Educating Exceptional Children(10th ed.)』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제4권, 제1호, pp.181-189, 2003.
- [8] 박경순,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 정책 네트워크 관점”, 한국직업재활학회, 제14권, 제2호, pp.23-55, 2004.
- [9] 박영준,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직업기술능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8권, pp.209-229, 2011.
- [10] 박은주,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재활서비스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제17권, 제1호, pp.165-192, 2007.

- [11] 박현수, 채인석, 강지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사례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7권, 제4호, pp.443-457, 2011.
- [12] 백은령, “여성장애인의 취업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17권, 제1호, pp.223-248, 2011.
- [13] 변용찬, 이정선, “취업 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15권, pp.153-171, 2005.
- [14] 손광훈, 심미영, 염동문, “장애인 취업육구의 구조모형분석 - 소득, 건강상태 및 직업특성 변수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제20권, 제1호, pp.129-150, 2010.
- [15] 오혜경,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황과 복지, 제13권, 제12호, pp.113-146, 2002.
- [16] 유동철,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영향분석: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 [17] 유숙,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18] 윤진,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가족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19] 이동영, 공적소득보장프로그램의 빈곤감소효과에 대한 장애인, 비장애인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20] 이상욱, 박주연,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유지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12권, pp.2-19, 2002.
- [21] 이상화, 정신지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직업재활서비스욕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22] 이선우,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프로빗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33권, pp.287-313, 1997.
- [23] 이지훈,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 [24] 임효순, 이홍직, “지적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19권, 제3호, pp.27-50, 2009.
- [25] 장인협, 사회복지 행정론: 이론과 실무,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 [26] 정기원,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보건복지포럼, 제7권, 1997.
- [27] 정한나, “장애인의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장애와 고용, 제20권, 제1호, pp.229-250, 2010.
- [28] 조상미, “취업 장애인의 임금 결정요인”, 장애와 고용, 제20권, 제3호, pp.75-96, 2010.
- [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실태조사, 2008.
- [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2차 한국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09.
- [3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3차 한국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10.
- [32] 한애경, 윤혜미, “중증과 경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영향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제22권, 제3호, pp.125-153, 2012.
- [33] 한이슬,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관련요인 탐색 -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34] 홍순애, 농어촌 정신적장애인의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35] 유완식, 사업주 중심의 지원체계 개편방안, 제9차 EDI정책토론회 자료집, pp.77-84, 2008.
- [36] 김세연, 구인순, 박자경, “여성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2권, 제8호, pp.318-329, 2012.
- [37] 한동우, “기업의 사회공헌과 장애인 고용”, 장애와 고용, 제54권, 겨울호, pp.5-15, 2004.
- [38] 이순희, 박석용, “중증장애인의 근로육구 및 실태조사를 통한 고용확대방안”, 한국콘텐츠학회지, 제9권, 제9호, pp.304-312, 2009.
- [40] Andreja Barišin, Tomislav Benjak, and Gorka

Vuletić,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relation to their employment status," *Croat Med J.*, Vol.52, pp.550-556, 2011.

[41] H. Hultin, C. Lindholm, and J. Möller, "Is There an Association between Long-Term Sick Leave and Disability Pension and Unemployment beyond the Effect of Health Status? - A Cohort Study," *PLoS ONE*, Vol.7, No.4, 2012.

[42] Ker-Chiah Wei, C. Lee, Rathi Mahendran, and C. G. Lim, "Improving mental health care for people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in Singapore: bridging the health social care divide," *Singapore Med. J.*, Vol.53, No.7, pp.428-432, 2012.

[43] A. M. Konarad, M. E. Moore, A. J. Doherty, E. W. Ng, and K. Breward, "Vocational status and perceived well-being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Vol.31, No.2, pp.100-123, 2012.

[44] E. Martz, "Invisibility of disability and work experience as predictor of employment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18, pp.153-161, 2003.

[45] P. Milet and K. W. Sandberg, "Locus of control and its relationship with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unemployed sick leaves in Sweden," *Journal of Rehabilitation*, Vol.19, No.1, pp.59-66, 2003.

[46] F. R. Volkman, C. Lord, A. Klin, and E. J. Cook, *Autism and the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In M, L. (ed.)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 Comprehensive Textbook*.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Philadelphia, pp.587-597, 2002.

[47] WHO, *The World Report Disability*, 2011.

[48] 이달엽, "장애인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직업성

공 요인 비교연구", 장애인고용, 제14권, 제1호, pp.49-69, 2005.

[49] 이현경, "정신적 장애인의 근로소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발표 자료, pp.1-22, 2011.

저 자 소 개

이 현 경(Hyun-Kyung Lee)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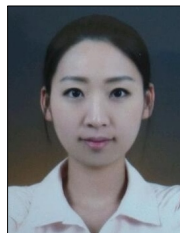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석사)
- 2002년 8월 : 서울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04년 10월 ~ 현재 :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

과 보건연구원

<관심분야> : 보건학, 보건행정, 정신보건, 보건정보, 건강증진 등

박 효 은(Hyo-Eun Park)

정회원



- 2011년 8월 ~ 현재 : 고려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석사과정
- 2012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 보건행정, 보건의료경영, 건강증진 등

최 만 규(Man-Kyu Choi)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보건학석사)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보건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보건행정, 보건의료경영, 건강증진 등